

팩트체크 + 보고서		 www.medianetwork.kr
2020-9주차	발행일: 2020년 3월 2일(월)	
연락처	(02) 741-7662	FAX (02) 741-7663
대표위원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 보고서」

(2020-9주차)

- 대상 매체·프로그램 :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JTBC<뉴스룸>
- 대상 기간 : 2020년 2월 23일(일) ~ 2020년 2월 29일(일) 7일간
- 대표 위원 :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 보고서 발표일 : 2020년 3월 2일

차 례

I.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권 나팔수 <MBC>

1. 정부 책임 간 데 없고 신천지·매점매석 업자의 책임
2. 야당 폄훼·여당 옹호의 ‘정권 나팔수’ <정참시>
3. 관련 기사 리스트

II. ‘국민 시선을 신천지로 돌려라’ <JTBC>

1. ‘우한 코로나’ 정부 책임은 없고 ‘신천지 탓’만
2. ‘마스크 대란’ 현상만 있고 원인은 없는 뉴스룸

III. 재난방송 망각, 코드·선전·불공정 <KBS>

I.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권의 나팔수로 치닫는 MBC

- 분석 프로그램 : MBC <뉴스데스크> (평일 19:30~20:30, 주말 19:55~20:45)
- 분석 기간 : 2020.02.24.(일) ~ 2020.02.29.(토) (7일간)
- 분석 기사 : 스포츠 기사 제외한 171건 기사 전수 (스포츠 기사 제외)
(일별 보도건수: 17+29+29+28+29+20+19=171)

1. ‘우한 코로나’ 정부 책임은 간 데 없고 신천지·매점매석 업자의 책임

● 신천지 책임성 기사만 32건을 주요 기사로 쏟아낸 가운데 정부의 집단 감염 원천 책임을 지적하는 기사는 아예 없었고, 마스크 부족 대란도 9건 보도에 그침. (관련기사 전수 후첨)

- 정부 책임 관련기사는 딱 1건으로, 2월 28일 문 대통령과 4당 대표와의 회동을 다룬 <중국인 입국 금지 '팽팽'…文 "신천지 문제 심각"> 보도였는데 그나마 원천 책임인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는 의견 대립이라고 무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신천지 문제 심각’ 발언을 강조함으로써 책임전가·면죄부성으로 보도.

- 2월 26일에는 야당이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추궁하는 국회 기사를 다루면서 <중국 눈치보나 vs 신천지 눈치보나>란 논거 미약의 역지 프레임으로 보도. 문 대통령과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질타들에 대응한 프레임으로 야당은 ‘신천지 눈치 보나’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그 근거로 조경태 의원의 발언 “입국금지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펴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 탓만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를 인용. 조 의원 발언은 정부의 책임 회피 지적에 방점을 둔 것인데 특정 집단 부분을 병립형으로 갖다 붙여 자의적인 덮어씌우기 왜곡 해석을 가함으로써 정부 책임을 몰타기함.

- 같은 날 복지부장관이 “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발언도 보도했는데, 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후속 보도를 하지 않음.

● 신천지 해체 청원만 보도하고 훨씬 많은 중국 입국 금지, 대통령 탄핵 청원은 미 보도 (관련기사 전수 후첨)

2월 23일 <신천지 SNS로 공식 입장…"우리가 최대 피해자">보도에 이어 2월 24일에도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 폭증…'강제 수사' 요구도> 기사를 통해 청와대 게시판의 ‘신천지 해체 청원’이 50만에 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76만에 달한 ‘중국 입국

금지 청원'은 무시했고, 우한코로나 사태의 책임 물은 '문 대통령 탄핵 청원'도 당시 20만이 넘어서면서 3월 1일 현재는 140만을 상회하고 있는데 보도하지 않는 정권 옹호 편파 방송만 함.

● **총리의 대구 상주 요란하게 보도후 마스크 공급 대란은 중개업자 등에 책임 전가**
(관련기사 전수 후첨)

- 2월 24일 정세균 총리가 대구로 내려가 상주하면서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으로 공급하겠다는 등 방역전쟁 지휘한다고 보도했는데, 그 이후 총리가 무얼 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지, 대체 대구에 왜 내려 갔는지 등의 후속 보도가 전혀 없음.

- 신천지 책임론 기사는 쏟아 내면서 마스크 공급 부족 대란 보도는 이후 9건에 그친 가운데 뒤늦은 부총리의 대 국민 사과 보도가 있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공급 안되고 이를 중개상 활개 등 업자 책임으로 보도하는 등 정부 책임을 희석.

● **외국의 한국인 입국금지·격리 조치에 대한 정부 책임 지적 실종과 어처구니 없는 중국 감싸기 보도** (관련기사 전수 후첨)

- 외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격리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의 책임 지적은 해당 기사 어디에도, 다른 별도 기사 어디에도 전혀 없고 중국의 원천 책임에 대한 직접적 지적도 없이 오히려 "중국이 내부적으로 좀 진정세라서 외부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같은데요"([2.27] 中 '한국인' 격리 조치 강화..."거주자도 까다롭게") 라는 어처구니 없는 중국 감싸기 보도를 함.

- 관련 기사들에서 외국에서 조치를 당하는 상황만 길게 전달한 채 '우리 외교부가 해당국 정부에 문제 해결해 달라라고 했다'라는 등의 하나하나한 내용만 일부 기사에 붙임.

2. 야당 폼훼·여당 옹호의 '정권 나팔수' 코너 <정참시>

- 정치권 스케치 코너인 <정참시>는 총 8건 보도에서 6건이 야당에 대한 비난·폼훼·왜곡·갈등 기사였고, 2건은 여당에 대한 응원·옹호 기사로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 정치 중립 위배 보도를 했다.

- 야당 대표가 '특정 교단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한 발언을 '신천지 옹호'라며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하고, 야당 비례정당은 '위성정당'이고 여당 비례정당

은 '의병 정당'이라며 칭송적 표현을 사용.

(2.27)

1) 가출했던 김민석, 여의도 입성할까? (여당 출마인사 노골적 칭송)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가출해 세상공부 마치고 돌아온 정치고향, 첫 창문을 열어줬다고 표현했는데요. 과연 본선인 총선에서 대문까지 열고 귀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2) "6.25때도 선거 했다" 코로나 전쟁은? (이승만 대통령 비난)

“1952년 한국전쟁 도중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 선거벽보와 투표 장면 보고 계신데요. 전면전 상황은 아닌 휴전 협상 중이었습니다. 당시 재선이 위협해진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구실로 계엄을 선포한 뒤, 재선에 성공했던 선거였습니다.”

(2.26)

1) 중국 눈치보나 vs 신천지 눈치보나

(야당이 신천지 눈치 본다며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

2) 이연주의 부산행…삭발에 막히나?

(야당 공천 갈등 상황 보도)

(2.25)

1) [정참시] 방역 나선 황교안…그런데 신천지는?

(야당대표가 '특정 교단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한 발언을 '신천지 옹호'라며 자의적 왜곡으로 몰아 감)

2) '친박신당' 출범…박근혜는 없었다 (야당 폄훼)

(2.24)

1) 황교안 '우한'고집, 안철수 또 실수 (야당 대표들 싸잡아 비판)

2) 민주당, 위성정당 대신 "의병"정당?

(야당 비례정당은 '위성정당'이고 여당 비례정당은 '의병 정당'이라며 칭송적 표현)

▶ [정참시] 가출했던 김민석, 여의도 입성할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6248_32524.html

☞ MBC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청된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 선거심의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 있어

○ 이 보도에 대한 MBC노조 성명서(2.29).

- 김민석 후보의 그동안의 부적절한 행보를 '가출해 세상공부를 한 아들'이라는 궤변으로 포장한 김민석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 전달했다. 대놓고 선거운동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 김민석 후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대학 동창 박 모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2015년 8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었다.

- 그런데도 김민석 후보는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치면서 민주당 약칭을 쓰는 정당이 없어지자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했다. 사람들은 이를 ‘알박기 정당’이라고 불렀다. 그래도 비난을 참고 버텨 민주당 약칭이 필요한 더불어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 또한 기사 제목도 잘못됐다. ‘가출했던 김민석’이 아니라 「불법자금 받고 알박기당 만들었던 김민석, 여의도 입성할까?」가 더 정확하다. 김민석 후보의 그동안 불출마와 여당 복귀 이유가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 방송법 제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 경영권을 장악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되고, 편파보도를 해도 되고,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구경북 봉쇄 발언’과 사퇴 관련**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5774_32524.html

☞ MBC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의 사퇴에 대해서는 ‘정실한 사과’를 담은 내용으로 상세히 보도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구경북 봉쇄’ 발언으로 사퇴한 내용과 관련하여 KBS <뉴스9>는 사퇴 사실만 한 줄로 언급하는데 그쳤고, SBS <뉴스8>은 홍대변인의 실언에 대해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이 “봉쇄라는 말은 언론이 잘 못 쓴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하고, 임미리 교수 고발 등 홍 대변인이 물의를 일으켰던 언행들을 전했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이인영 대표의 사과 인터뷰를 내고, 홍 대변인의 사퇴의 변을 그래픽으로 내는 등 여당의 ‘정실한 사과’를 40초에 걸쳐 상세히 전했다(2.26). <‘TK 봉쇄’ 홍익표 결국 사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 확산은 한국인’이라는 발언 관련**

☞ MBC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 확산은 한국인’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 논란을 아예 보도하지 않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발언과 관련, KBS <뉴스9>는 간단히 내용을 언급한 뒤 “야당의원과 설전을 벌였다”고 리포트 했고, SBS <뉴스8>은 “감염 피해자인 자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정의당의 지적을 전하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초기 30명의 확진 상황만을 갖고 사태 원인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는 리포트를 했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관련 논란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2.26).

▶ **청와대에 불리한 통계보도는 누락**

☞ 지난 2월 27일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면서 그 근거로 인용한 통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MBC는 ‘청와대에 불리한 통계 비공개’는 보도하지 않아

- KBS <뉴스9>는 “어제(27일)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면서 그 근거로 인용한 통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취재진이 문의하자 청와대는 브리핑 내용을 정정하면서 관련 통계를 다시 내놨는데, 이마저도 불리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리포트 했다. SBS <뉴스8>도 “어제(27일) 청와대 대변인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실익이 없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근거를 제시했던 게 드러났다. 안 그래도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청와대가, 잘못된 통계 수치를 논거로 활용하면서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리포트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MBC <뉴스데스크>는 보도하지 않았다(2.28).

▶ ‘코로나19’ 확산 우려 ‘통계 오류’ 정정한 靑…‘불리한 통계’는 비공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0933>

▶ 靑, 잘못된 수치로 "中 입국 금지 안 돼"...신뢰 위기 자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7302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3. 관련 기사 리스트 (MBC 뉴스데스크)

○ **신천지 책임성 기사 (32건)**

- [2.29] 신천지 신도 1차 전수조사…"증상 있다" 4천3백명
"최근 8개월 中 우한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 42명"
'신천지 명단 은폐' 의혹…檢 이만희 총회장 '정조준'

- 신천지 숨기고 자가격리 어기고...공무원 '늑장 고백'
전 총리 비서실장 "신천지, 이낙연 전 총리도 포섭 시도"
- [2.28] '신천지' 3천6백여 명 "증상"...1만 4천여 명 연락 안 돼
신천지 명단 누락·조작 의혹...대구시 "고발하겠다"
'총회장 특별 편지'만 내놓고...행적 묘연한 이만희
중국인 입국 금지 '팽팽'...文 "신천지 문제 심각"
- [2.27] '확진' 왜 많나?...'"유증상' 신천지 교인부터 검사" (톱 기사)
숙소 생활 신천지 교인 2명 확진..."시설 공개 명단에 없어" (톱 2)
명단 축소' 논란 일자...뒤늦게 9만여 명 추가 제출 (톱 3)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검찰에 이만희 고발 (톱 4)
"대구 신천지 다녀와" 거짓말로 코로나 검사...구속
"신천지 비밀 모임" 민원 잇따라...'폐쇄명령' 의문
- [2.26] '동선' 숨기고 '자가 격리' 무시..."거짓 진술까지" (톱4)
신천지 교인 21만여 명 명단 전달..."믿을 수 있나?"
"신천지 중국 신도, 지난해 12월까지 우한서 모임"
[정참시] 중국 눈치보나 vs 신천지 눈치보나 / 이언주의 부산행...삭발에 막히나?
- [2.25] 10번째 사망자 대구에서...'증상' 신천지 교인 우선 검사 (톱 기사)
'대남병원' 다녀온 부목사 확진..."2천여 명 함께 예배" (신천지 연관 병원)
이만희 "신천지 명단 주겠다"...신도 21만 조사
"명단 제출 못 기다린다"...과천 신천지 '강제 진입'
대남병원 "신천지 이만희 형, 사망전 5일 입원"
"신천지" 뒤늦게 밝힌 직원...대구시장은 '오락가락'
[정참시] 방역 나선 황교안...그런데 신천지는? / '친박신당' 출범...박근혜는 없었다
- 이만희 형 '폐렴' 사망 확인...'코로나19' 관련성은?
- [2.24] 의심 증상 없어도...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모두 검사
보건소 감염 총괄팀장도 확진..."신천지" 뒤늦게 알려
'과천 신천지' 전파 통로되나..."신도 명단 확보 안 돼"
집단 감염지역 4곳을 막아라...앞으로 2주가 고비 (대구 신천지, 경북 대남병원, 경북 안동 천주교구, 부산 온천교회 등 대구·영남 지역 4곳만 거론)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연락 두절' 교인 추적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 폭증...'강제 수사' 요구도

○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편파적 보도

- [2.24]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 폭증...'강제 수사' 요구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것은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면서 헌법적 이익을 위해 종교단체인 신천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글은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이틀 만에 5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2.23] 신천지 SNS로 공식 입장…"우리가 최대 피해자"

한편,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교회를 해체하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엔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기주 기잡니다.

○ 마스크 공급 부족 대란과 총리·부총리 관련 보도

[2.24] 정 총리 "대구 가서 방역 전쟁 지휘…마스크 수출량 제한"

[2.25] "마스크업체 과장인데 선입금부터"…약국도 당했다 외 2건

[2.26] 매일 350만 장 푼다는데…내일은 마스크 살 수 있나?

[2.27] "국민께 송구" 부총리 사과…"내일부터 제때 공급" 외 2건

[2.28] "필터 줄 테니 마스크 절반 내놔"…중개상 '활개' 외 2건

[2.29] '3분' 만에 동남 마스크…긴 줄에 번호표까지

공적마스크는 '찢금'…명동엔 못보던 마스크 쏟아져

그런데 서울 명동을 가봤더니 여기저기 못보던 마스크가 넘쳐납니다.

갑자기 엇그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유통으로 마스크 가격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자, 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쌓아뒀던 마스크를 급히 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지방만 담당하던 농협 하나로마트가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도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는 등 유통 채널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주면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될 거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 외국의 한국인 입국금지·격리 조치 기사

[2.29] 비행기 출발했는데 "하노이 착륙 안 돼"…긴급 회항 (14번째/19건중)

- 상황만 보도

[2.28] 한국은 中 후베이와 같은 급…"자기 집에도 못 가"

앵커

중국 내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강제 격리 방침이 시행되는 지역이 늘었고, 또 일부 지역에선 중국인들이 자의적으로, 우리 교민들의 아파트 출입까지 막아서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중국 관영매체에선 한국인 출입금지같은 차별적 표현이 중국민도 비난받을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점차 강화되는 공식·비공식적인 통제에 불안한 교민들은 영상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영상취재: 고별(베이징) / 영상편집: 안광희)

[2.28] 중국인 입국 금지 '팡팡'…文 "신천지 문제 심각"

(전략)

중국인 입국 금지를 놓고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문 대통령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천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유성엽/민생당 공동대표]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좀 더 긴장했어야 합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천지'라며, "전국에 신도가 있어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27] 中 '한국인' 격리 조치 강화…"거주자도 까다롭게"

(전략)

중국 관영매체는 '방역은 양보할 수 없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경우는 격리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중국이 내부적으로 좀 진정세라서 외부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같은데요.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래서 질문이 바로 이어졌는데 "그렇다고 외국에서 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애매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27] 트럼프 "한국 입국 제한, 적절한 때 아냐"…속내는?

- 상황만 보도

[2.26] 한국에 깐깐해진 中 지방 정부들…승객들 격리

앵커

한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 하거나, 검역을 강화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중략)

외교부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하고, 중국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싱 대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싱하이밍/중국 대사]

"일부 지방 정부에서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 양해하고 이해해 줘요면 합니다."

[2.26] '입국 금지' 돌아온 관광객들…"설명 없이 강제 격리"

앵커

베트남 다낭과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입국 금지를 당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격리됐던 우리 국민들은 열악한 시설에 방치돼 힘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중략)

[모리셔스 격리 관광객]

"이상자가 있는 거 확인했냐고 저희가 대사관에 물어봤어요. 저희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열이 났거나 기침 있는 사람이 있었냐...저희 이상자 아무도 없었거든요."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모리셔스 측에서 입국금지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예고 없이 입국 금지 조치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25] "한국인 입국 안 돼" 속출…美 '한국 여행 경보' 격상

앵커

한국에서 출발 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중략)

[김건/외교부 차관보]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국내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과도하게 하는 조치,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2.25] '모리셔스' 격리 신혼부부들…"짬뽕 감옥같았다"

- 상황만 보도

[2.24] '모리셔스' 신혼부부 18쌍 격리…까다로워진 한국인 입국

앵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신혼부부 열여덟 쌍이 공항에서 격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렇게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략)

외교부는 내일 각국 대사관들에게 cg)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2.24] 공항에 한국인 '전용 통로'…"한국 친구 만났으면 신고"

- 상황만 보도

II. '국민 시선을 신천지로 돌려라' <JTBC 뉴스룸>

1. '우한 코로나' 정부 책임은 없고 '신천지 탕'만

▶ 신천지 이만희, 감염여부 확인 필요한데...행적 '묘연' (2.2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6495&pDate=20200224

○ “(기자) 신천지 교회에 다녀온 확진자가 매일 늘고 있지만, 신천지는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신들이 피해자이며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고만 전했습니다./ 총회장인 이씨도, 이번 사태를 마귀가 일으켰다는 내용의 특별편지만 공유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치러진 친형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씨의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교단 관계자는 이씨가 거주하는 곳이 두세곳 있고, 현재 건강 상태는 이상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징역형'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신천지' 감추는 교인들 (2.24)

▶ 이 와중에 대규모 해외행사 계획한 '신천지 관련단체' (2.24)

▶ 이만희 "개인정보 보호하면 전체 신도 명단 넘길 것" (2.25)

▶ 감염 가능성 있는데...신천지 신도 명단서 '교육생'은 빠져 (2.25)

▶ 전도 못 하면 거액 벌금...이만희 1등 상금 수십억" (2.25)

▶ 신천지 "대구 감염, 지난달 왔던 중국 수학여행단 탕" 주장 (2.25)

▶ 광주 대학가 '신천지 포교' 골머리... "적발 땀 퇴교" (2.25)

▶ 가평 신천지 연수원엔 '폐쇄' 안내문...이만희는 어디에 (2.25)

▶ 사망자 7명, 청도대남병원 관련...병원 측, 이제야 입장문 (2.25)

▶ 21만여명 명단 낸 신천지, 1월 총회선 "30만 신도 달성" (2.26)

▶ 곧 신도 될 교육생도 '누락'...신천지 명단 '9만명 차이' 왜? (2.26)

▶ 고발당한 신천지 이만희... "거짓 자료 제출로 피해 키워" (2.27)

▶ 대륙으로 번진 '신천지 논란'...중국 정부, 신도 추적 (2.27)

▶ 접수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검찰, '이만희 수사' 속도 (2.28)

▶ "신천지인 걸 속이라 지시...남편도 몰라" 전 신도 고백 (2.28)

▶ 차질 빛는 신천지 조사...부산서 1천명 넘게 연락두절 (2.29)

▶ '신천지 신도명단' 제출 논란...이만희 지시 여부 조사 (2.29)

○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 뉴스룸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담당자를 비판하거나 책임을 지적하지 않는 일관성을 보인다. 대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큰 피해자인 신천지 측이 사과하지 않는다거나, 이들에 부정적인 뉴스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신천지 신도들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언론이라면 마땅히 이 점을 지적해야하는데 뉴스룸에선 찾아볼 수 없다.

- 정부의 방역실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종교적 논란이 있다고 해서 신천지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주 개인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뉴스룸이 **신천지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 정부 책임을 면해주는 정치공작형 보도**라 할 수 있다.
- 또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천지 교인들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이 필요한데, 뉴스룸은 이 종교에 관한 지나치게 많은 뉴스양을 쏟아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들이 신분을 밝히기 꺼려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보도 흐름은 전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스룸은 신천지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정권 입맛대로 신천지 악당만 들기에만 몰두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에 처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뉴스룸은 시종일관 우한 바이러스 확산에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룸은 우한 바이러스 사태 초기 방역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과 책임 당국자들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는다.
- 신천지 신도 가정의 비극적 파국은 신천지라는 종교의 특성과 함께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덮어씌운 '신천지 사냥'과 이를 그대로 따라 보도하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 뉴스룸은 신천지의 바이러스 확산,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청도대남병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총체적인 방역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하지 않고 있다.
- 우한 코로나 사태 중국 책임을 지적해야 할 한국 언론 뉴스룸은 **정부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신천지 조사에 공조한다는 적반하장격 소식을 보도**를 했다.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신천지가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중국 책임을 비판하지 않는 뉴스룸은 급기야 한중이 신천지 조사에 공조한다는 황당한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마스크 대란' 현상만 있고 원인은 없는 뉴스룸

- ▶ 마스크 수출 사실상 금지...생산량 절반 '공적 판매처'로 (2.25)
- ▶ '단속' 비웃듯...마스크 가격 10배 ↑, 수백만 장 거래도 (2.2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6701&pDate=20200225

○ “ [앵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마스크를 파는 데를 보기도 어렵고 가격도 열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하거나 수백만 장씩 거래하겠단 업자도 여전합니다. 5만 원대에 마스크 40장을 주문한 이 소비자도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몰 마스크 구매 피해자 : 어제 오전에 문자가 와서 매진됐으니까 취소해달라, 그러면 환불해주겠다. 전 환불 원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보내달라. 말하고 있는데 끊어 버리더라고요.]/ 정부가 사재기를 단속하고 밀수출을 막아도 몰래 거래하는 업자들은 여전합니다. / 5분도 안 돼서 가격을 또 올리는 업자, 5백만 장을 수출하겠다는 업자도 있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책이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밀착카메라] 줄 서고 달려도... '마스크 품절'에 발 동동 (2.27)

▶ 마스크 사려 곳곳 긴 줄...빈손 '헛걸음'에 일부 소동도 (2.28)

▶ 총리도 못 구한 마스크... "해외 수출 금지" 추가 대책 (2.2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7451&pDate=20200228

○ “[정세균/국무총리 : (부족하다고는 해도) 하나로마트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으시더라고요.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아요.] [약국 관계자 : (시민들이) 한 장을 보통 3일, 5일씩 끼고 다니십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 마스크 448만장 풀었다지만...전국 곳곳서 '헛걸음' (2.29)

○ 뉴스룸은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룸만 보면 마스크 대란 사태 표피적인 현상만 알 수 있을 뿐 이런 현상을 낳는 원인을 알 수 없다.

○ 뉴스룸은 마스크 부족, 대란 사태 원인으로 사대주의 논란까지 낳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국에 대한 ‘묻지마’ 지원, 대 중국 수출, 조선족 등 중국인 밀반출 등의 사회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국인들이 사재기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민간 부분에 책임을 떠넘겼다. 뉴스룸에는 마스크 품절 사태, 대란 사태 현상만 있고 원인은 없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충분한 심층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부실보도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중국의 책임을 감추려는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Ⅲ. 재난방송이 아니라 코드·선전·불공정 방송인 <KBS>

○ KBS <뉴스 9>

○ 2020.02.23~2020.02.29.

○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19)에 관한 뉴스 (보도건수/전체기사건수)

2020.02.23, 28/30, 2020.02.24, 17/24, 2020.02.25 26/32, 2020.02.26 26/33, 2020.02.27 24/32, 2020.02.28 26/34, 2020.02.29 19/24, 총 166/209.

● 대구, 신천지 기사, 4건(23일), 3(24), 8(25), 6(26), 9(27), 4(28), 7(29), 총 41/209

보도의 방향은 환자를 줄이는데 있다.(재난방송, 제24조),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영방송이 할 일이 아니다. 대구, 신천지 낙인 효과. 프레임을 형성하고, 그 모든 범죄 행위를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이는 종교 탄압이고, 특정지역 혐오 발상을 일으킨 것이며, 의도적으로 희생양을 만들었다면 범죄행위이다. 신천지 교회가 대구만을 교인으로 하고 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포교를 한다. 문화일보 구자창 기자(2020.02.28), <신천지에 수도권도 위험..‘코로나’ 유증상 신도 1000여명>이라고 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환자가 나오면, 재난 보도라면 당연히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재난보도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선전, 선동, 세뇌 행위이다. 그건 우리의 자유주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어느 종교든, 어느 지역이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젊은 전문가 교수 3사람이 등장한다. 고대 안산병원(3번), 한림대 성심병원(3번), 가천대 길병원(1). 그들의 전문성은 인정한다. 그들은 과거의 메르스 때 경험을 가진 전문가도 아니다. 대구경북 지역 교수를 한 사람도 없다. 환자 86%가 대구에서 발생했다.(29일 현재). 경북대, 영남대, 가톨릭대, 계명대 등에 실제 임상에 참여하는 교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 과학보도는 현장에서 실험, 관찰, 예증, 통계 등으로 분석을 한다. 이 세 전문가는 학교에서 하던 일반적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고 감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도 아니다. 실제 이 위중한 시기에 상식적 이야기를 한다. 코드 전문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 2020.02.26,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인터뷰, <‘코로나19’ 확산 우려

[인터뷰]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경증 환자 치료 위한 의료인 지원 필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9421> 행정적 물음에 거친다.

예, 병상은 정해져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실제로 집에서 치료하는, 집에서 격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동산병원이 거점 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또 환자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구에 있는 여러 거점병원을 포함한 병원에서 이들을 위한 격리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20.02.29,<‘코로나19’ 확산 우려 신천지 제공 명단 누락 잇따라…정부 “왜곡 여부 조사”> 기사는 색깔을 정하고, 한쪽으로 몰고 가는 보도를 한다. (방송법 제32조 ⑩항, 보도·논평의 공정성, 공공성에 관한 사항)에 따른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다.

신도들은 이런 희생양의 분위기에서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피한다. 누가 그 명단을 공개하기를 원하겠는가? 교회든, 개인이든 누구도 원치 않는다. 자기가 의심 환자도 대부분 아닐 것이다. 일방적 친여 지지체 장들이 나와서, 욕박지른다. 앵커, 기자, 부산시장, 경기시장 등은 같은 논조로 신천지교를 폄하한다. 이건 선전, 선동, 세뇌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재난보도 일수록 과학성의 분석이 요구된다. 일방적 이념으로 욕박지르는 것은 재난보도가 아니라, 강요,

선전, 선동 보도일 뿐이다. '국민의 방송'은 그 위상에 맞게 해야 한다.

(관련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1256>

앵커

신천지가 정부에 제공한 신도 명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명단이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단 누락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전에 신천지 교단 측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 입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어제 : "신천지가 정부에 '대구에 갔다온 사람 중에 경기도민 20명이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저희가 강제로 조사할 시점에 서버에는 이미 20명이 삭제돼 있었다."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4명 가운데 3명도 신천지측이 정부에 제공한 명단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거돈/부산시장 : "중앙본부로부터 받은 부산시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의 신뢰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 25일 국내외 신도 24만 5천여 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총회에서 신천지측이 밝힌 국내외 신도는 23만 9천여 명.

그사이 6천 명 가까이 신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신천지 총회/음성변조/지난달 : "23만 9천 353 명으로 (전년보다) 18% 성장했습니다."]

종말론사무소는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공한 교육생 명단 6만 5천여 명도 탈퇴자의 정보까지 포함해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취재기자.

정부는 명단 누락과 왜곡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xxx입니다.

● 전제가 잘 못되면, 그 기사보도의 방향이 전혀 진실과 정의와는 관계없는 기사된다. 오히려 이런 의도적 보도는 범죄행위가 된다. 선전, 선동, 세뇌가 그 과정에서 나타난다. 우한(武漢)폐렴의 개념은 코로나바이러스19일 수 없다. 보통명사로 표기될 수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쓰는 일반적 용어는 나쁜 짓을 희석화시키는 것이다.

일반 용어로 쓸 수 없는 이유로 자연적 바이러스(1/1000)가 아니고, 유전자조작으로 1/200만 μ m까지 간 특수 바이러스이다. 중국인민국립생물안전성연구소(중국 인민군 생물학戰연구소)만들어 낸 생물 화학적 무기의 일종이다. 인류 멸망에 쓰이는 도구가 된다. 나중 에 시진핑 주석이 주도했다면 반드시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단죄를 받게 된다. 그 조치로 공산당 정권은 우한 시민을 '최대 봉쇄'를 했다. 인간을 집안에 두고, 도시에 두고, 감금시킨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대한의사협회, 질병관리본부에서 6번 이상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청와대는 계속 문을 열어두었다. 정권은 대구를 '최대 봉쇄'로 몰고 갔으나, 실패 했다. (제32조, ①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제 24조, 시정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줘서는 아니 된다.) 그 원인을 따지게 되면, 그 관련자는 인류 파괴의 공범자가 된다. 방송사도 무임승차는 없다. 재난방송 잘 못하면, 방송의 문을 닫을 수 있다. (끝)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